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18.7.16.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과 콘텐츠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이 발표되었다. 지난 1월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지별로 마스터플래너·지자체와 사업 시행자(LH, K-water), 각계 전문가와 비전과 목표, 주요 콘텐츠의 적합성 등을 논의하여 이번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다.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물머리 수변공간의 활용 -도심을 연결하는 인공물길과 수변카페
자료: 차산업혁명위원회(2018),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사람 중심의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7월 16일자 보도자료.

세종 5-1 생활권: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 도시, 특히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분석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에 대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체계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로 조성하여, 기존 용도지역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의 구현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혁신적인 도시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를 강조하여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가 제안되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자연·사람·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시범도시 비전은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로, 3대 특화전략이 제시되었다.

먼저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특화전략은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로,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하여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를 구현한다.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 프로그램 등)